

학교숲을 구성하는 비술나무

	강원-정선-22		강원 정선군 정선읍
지정번호	1982		봉양4길 15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정선		37° 22' 41.34" N
수령	326년		128° 39' 43.23" E
수고	28m		
흉고둘레	6.4m		



학교숲을 이루는 보호수(강원-정선-22) 비술나무는 함께 사용하는 정선중학교와 정선고등학교의 운동장 끝 가장자리에서 자라고 있다. 이 보호수는 관공서 기록 및 일반 매스컴을 포함한 표지판에서 느릅나무라고 이름하고 있으나 실제로 커다란 이 나무는 느릅나무와 비슷한 비술나무이다. 정선중학교와 정선고등학교의 교목이 느릅나무인 것도 학교 교정의 이 나무를 느릅나무로 여겨 상징하는 것 같지만 학교숲의 나무는 느릅나무가 아니어서 아쉽다. 비술나무의 나이는 326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8m, 가슴높이둘레는 64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에서 2갈래로 갈라져 있고, 높이 7m 정도에서 한 줄기가 2갈래로 다시 갈라진 후 올라가면서 몇 개의 가지 줄기가 갈라지고 가지를 내어 전체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높이 10m 정도에서 고사한 가지를 절단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정선중학교숲'을 이루는 주요 나무이다. 학교숲은 학교 옥외 환경개선 및 녹지량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함과 아울러 학생들의 정서 순화를 돕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에 조성한 숲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연체험 학습 기회 및 자연학습의 장을 제공하여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곳이다. 이곳의 학교숲은 좁은 면적이지만 떨기나무 몇 그루와 커다란 하나의 비술나무가 어우러져 있다. 마치 비술나무 하나가 숲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학교숲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는 표지석도 세워져 있다. 또한 비술나무 앞에는 2006년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2046년에 개봉할 수 있도록 한 '타임캡슐' 매장의 표석비도 있다. 한편 이 비술나무와 같은 학교 교정의 운동장에 있던 보호수 은행나무는 현재 말라 죽어 없어졌다.